



신라의 태조 미추왕과 은하수 星漢

King Michu, the founder of the house of Kim of the Shilla dynasty and the Milky Way

저자 (Authors)	정연식 Chung Yeon-Sik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62 , 2011.6, 207-251 (45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62 , 2011.6, 207-251 (4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51563
APA Style	정연식 (2011). 신라의 태조 미추왕과 은하수 星漢. 한국고대사연구, 62, 207-25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8 13:2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의 태조 미추왕과 은하수 星漢

정연식*

- I. 머리말
- II. 星漢王 연구사 검토
 - 1. 碑文에만 남은 성한왕
 - 2. 史書에서 성한왕 찾기
- III. 왕통세대수와 혈통세대수
- IV. 태조 미추왕
- V. 은하수왕과 용왕
 - 1. 미추왕과 은하수
 - 2. 미추왕과 용
- VI. 은하수왕의 퇴출과 교체
- VII 맺음말

국문초록

통일신라시기부터 고려초까지 금석문에 등장하는 태조 星漢王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신라 최초의 김씨 왕인 味鄒王으로 보인다. 성한왕 즉 미추왕이 금석문에서 문

*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표논저 : 2000 「조선시대의 시간과 일상생활」 『역사와 현실』 37 ; 2001 「화성의 방어 시설과 총포」 『진단학보』 91; 2001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 『역사학보』 169.

무왕의 15대조이고 흥덕왕의 24대조로 나타났던 것은 부자조손 관계에 따른 혈통세대 수 뿐만이 아니라 왕위계승 순서에 따른 왕통세대수를 혼합하여 세대수를 세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에는 제왕은 북극오성이 강림하여 탄생하며 제왕의 상징인 북극오성은 은하수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은하수는 中代 왕실의 관념적 시조였다. 중대 왕실이 은하수를 뜻하는 ‘漢, 星漢’을 써서 시조 미추왕을 漢王 또는 星漢王이라 불렀던 것은 그 때문이다.

성한왕이라는 별명은 미추왕이라는 본명의 소리와도 관련되어 있다. 은하수를 뜻하는 방언 ‘미리내’가 용을 뜻하는 ‘미리’와 하천을 뜻하는 ‘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은 은하수를 하늘의 용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味鄒’는 ‘미소[misV]’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었고, 음운학적 법칙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 龍을 뜻하는 ‘미리[mirV]’는 고대국어에서 ‘미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소는 용이고, 용은 은하수이므로 미소왕 즉 味鄒王에게 星漢王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 왕조의 개창과 더불어 은하수가 신라 왕실의 시조라는 관념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은하수의 역할을 왕건의 증조부인 國祖 損乎述이 맡게 되었다. 따라서 미추왕에게 성한왕이라는 별명을 더 이상 부여할 수 없었다. ‘星漢王’이 고려 초부터 보이지 않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그 때문이다.

주제어 : 미추왕, 성한왕, 세대수, 용, 은하수

I. 머리말

신라 중대 이후로 碑文에는 신라 태조 星漢王이 몇 차례 등장한다. 그러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문헌자료에는 성한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성한이 누구인지에 대해 일제강점기 이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으나 아직까지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숙제로 남아 있다.

필자는 신라의 경주 첨성대, 고구려의 평양 첨성대, 고려의 개성 첨성대를 연구하면서 그 첨성대들이 선덕여왕, 연개소문, 왕건의 성스럽고 위대한 탄생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 그런데 경주 첨성대나 평양 첨성대가 하늘의 별과 땅의 우물(뭇)이 결합하여 사람을 탄생시키는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음에 비해, 개성 첨성대에서는 帝王을 상징하는 하늘의 北極五星이 胎를 상징하는 하늘의 三台六星에 잉태되어 靈이 태어나고 그 靈이 산을 타고 내려와 위대한 인물로 탄생하는 서사구조로 바뀌었다. 그런데 개성 첨성대에 나타난 서사구조의 변화가 이미 통일신라에서 형성된 것의 연장이라는 사실이 신라 宗廟 건물 유적에서 확인된다. 신문왕 때에 계림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곳에 지은 종묘 건물 뜰에는 여섯 구덩이 안에서 향아리 다섯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삼태육성에 잉태된 북극오성을 상상하기에 충분하다.²⁾ 결국 중대 이후의 신라왕들은 하늘의 별들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星漢이라는 이름은 그러한 관점에서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일명 漢王이라고도 부르는 星漢王은 시조 김알지의 7葉孫이며 文武王의 15대조이자 興德王의 24대조인 제13대 味鄒王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미추왕은 신라 김씨 왕통의 始祖로서 진흥왕순수비에 太祖로 새겨졌으며, 687년(신문왕 7)에 설립된 종묘의 太祖室에 봉안되었고, 때로는 龍으로, 때로는 모든 왕의 탄생의 출발점인 하늘의 은하수로 인식되었다. 그 사실을 천문학, 음운학, 민간설화 등을 원용하여 하나하나 입증하고자 한다.

-
- 1) 정연식, 2009「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첨성대」『역사와 현실』 74 ; 2011(a)「평양 첨성대의 서사구조와 연개소문의 탄생」『역사와 현실』 79 ; 2011(b)「王建 탄생의 落星 설화와 개성 첨성대」『한국중세사연구』 30.
- 2) 정연식, 2011(c)「통일신라의 종묘 건축과 종묘제의 변화-계림 북쪽의 대형건물 유구와 관련하여-」『한국사연구』 153.

Ⅱ. 星漢王 연구사 검토

1. 碑文에만 남은 성한왕

조선 정조 때에 밭 갈던 농부에 의해 문무왕릉비 조각 둘이 발견되었다.³⁾ 1931년에는 경주 선도산 중턱 서악서원 樓門 밑에서 김인문묘비가 조각난 채 발견되었다. 성한왕에 대한 의문은 그 비석 조각들에 새겨진 ‘十五代祖星漢王’과 ‘太祖漢王’이라는 구절에서 시작되었다.

(가) “(문무왕의) 15대조 성한왕은 그 바탕(質)이 하늘에서 내려와 영(靈)이 선악(仙岳)으로 탄생하셨으니(十五代祖星漢王 降質圓窮 誕靈仙岳)…”
-〈文武王陵碑〉⁴⁾

(나) “태조 한왕(漢王)께서 천년의 □을 여시고(太祖漢王 啓千齡之□)…”
-〈金仁問墓碑〉⁵⁾

우선 (가)의 “星漢王”과 (나)의 “太祖漢王”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의가 없다. 그런데 ‘星漢’은 고려 초의 금석문에도 보였다.

(다) “속세의 성은 김씨이고 그 선조는 계림 사람이다. 그 나라 역사를 살펴

3) 비석 조각들은 언젠가 사라졌는데, 아랫부분이 1961년에 동부동 주택에서 다시 발견되었고, 星漢王이 새겨진 윗부분도 최근 2009년 9월에 동부동 주택의 수돗가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4) 한국고대사회연구소編,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Ⅱ(신라1·가야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125.

5) 한국고대사회연구소編, 앞의 책, p.136

보건대 실로 성한(星漢)의 후손으로서…(俗姓金氏 其先雞林人也 考其國史 實星漢之苗) -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文〉⁶⁾

(라) “속성은 김씨이고 계림 사람이다. 그 성은 성한(聖韓)에서 시작되어 나물(那勿)에서 흥했으니…(俗姓金氏 雞林人也 其姓降自聖韓 興於那勿)”
- 〈毗盧庵眞空大師普法塔碑文〉⁷⁾

고려 초에 崔彦擣가 2년 간격으로 지은 〈眞澈大師塔碑文(937)〉과 〈眞空大師塔碑文(939)〉에도 ‘星漢’과 ‘聖韓’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같은 인물로서 ‘聖韓’은 ‘星漢’을高雅하게 표현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도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이상의 기록으로 성한의 성격을 살펴보면 그는 왕이었다. 또한 태조이므로 아마도 김씨 초대 왕이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을 보면 그 인물이 미추왕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미추왕이 문무왕의 15대조에 해당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문무왕의 15대조 성한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우선 김씨 왕실의 계보도를 만들어야 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김알지부터 미추왕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A1)(A2)이다.⁸⁾

(A1) 『三國史記』: 闕智1-勢漢2-阿道3-首留4-郁甫5-仇道6-味鄒7

(A2) 『三國遺事』: 闕智1-熱漢2-阿都3-首留4-郁部5-俱道(仇刀)6-未鄒7

두 기록에 이름이 약간 다르게 나오지만 동일 인물을 달리 기록한 것임

6) 朝鮮總督府편, 1919 『朝鮮金石總覽』, p.126.

7) 朝鮮總督府편, 앞의 책, p.135.

8)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味鄒尼師今; 『삼국유사』 권1, 기이2 金闕智脫解王代

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추왕은 김알지의 7세손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사실은 『삼국유사』의 「未鄒王竹葉軍」 기사에서 재확인되고 있다.⁹⁾ 그리고 미추왕 이후의 김씨 왕의 계보는 각 왕의 즉위조에 기록된 왕의 부모로 밝혀진다. 이를 바탕으로 김알지에서 문무왕에 이르는 계보를 만들어보면 (B)와 같다. 이제는 문무왕부터 세대수를 거슬러 올라가 제15대에 이르는 인물을 찾으면 된다.

(B) 閼智-勢漢-阿道-首留-郁甫-仇道 $\left\{ \begin{array}{l} \text{味鄒王} \\ \text{末仇-奈勿王-卜好-習寶-} \\ \text{-智證王-立宗-眞興王-眞智王-龍春-武烈王-文武王}^{10)} \end{array} \right.$

그런데 세대수를 세기에 앞서 세는 방법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지금은 대개 조상의 세대수를 셀 때에는 아버지를 기점으로 세어 올라가서 ‘○○代祖’라 쓰고, 후손의 세대수를 셀 때에는 당사자를 기점으로 세어 내려가서 ‘○○世孫’이라 쓴다. 즉 할아버지는 2대조이고 손자는 3세손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고대사회의 기록과 금석문에서는 ‘卅四代孫’, ‘七世父母’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조상을 셀 때나 후손을 셀 때나 代와 世의 구분을 두지 않고 뒤섞어 썼다. 그리고 조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나 후손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당사자부터 세었다.¹¹⁾ 즉 할아버지는 3대조 또는 3세조이고 손

9) “第十三未鄒尼叱今 金閼智七世孫”(『삼국유사』 권1, 기이2 未鄒王竹葉軍)

10) 敬順王殿碑에도 습보의 아버지로 卜好가 등장하는데(朝鮮總督府편, 1919 앞의 책, p.1265), 복호가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는 논지와 무관한 문제이므로 편의상 복호로 한다.

11) 그런데 ‘모두’가 아니라 ‘거의 모두’라고 표현을 달리해야 할지도 모른다. 가야 왕의 세대수 기록에 의문 나는 점이 약간 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실린 가야 왕들은 首露王부터 仇衡王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왕위가 아들에게 이어져

자는 3대손 또는 3세손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을 (B)의 계보도에 적용하여 세대수를 표시한 것이 (C)이다.

(C) 關智17-勢漢16-阿道15-首留14-郁甫13-仇道12-
 味鄒王11-
 末仇11-
 -奈勿王10-卜好9-習寶8-智證王7-立宗6-眞興王5-眞智王4-龍春3-
 -武烈王2-文武王1

이를 보면 성한왕이 미추왕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이 계보도에 의하면 미추왕은 신라 왕실의 직계 조상이 아니다. 그리고 미추왕과 성한왕은 글자로도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추왕은 문무왕의 11대조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계보도를 보정하여 15대조에 맞춰보려 해도 세대수의 차이가 너무 커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이는 문무왕의 15대조에 해당되는 阿道の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아도는 시조도 아니고, 왕도 아니며, 글자로 보아 성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고, 이름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을 정도로 소홀하게 다뤄진 인물이다.

이를 세어보면 구형왕은 수로왕의 10대손에 해당되는데, 문무왕의 制書에서는 수로왕의 '9대손'이라 하여 상충된 기록을 남기고 있다(『삼국유사』 권2, 기이2 駕洛國記). 또한 『삼국사기』 김유신전에서는 仇亥王(仇衡王)이 수로왕의 '9세손'이라 하였으나, 지리지에서는 수로왕의 '10세(손)'라 하여 여기서도 상충된다(『삼국사기』 권41, 열전 1 金庾信; 권34, 지3 지리1 金海小京). 그 차이가 卍와 代의 차이인지, 아니면 조상을 셀 때와 후손을 셀 때의 차이인지, 그리고 가락국 셈법과 신라 셈법의 차이인지, 아니면 사건 당시 셈법과 기록 당시 셈법의 차이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렇듯이 卍와 代를 혼동하는 착오 때문인지 매우 혼란스러우며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조합되면 더욱 갈피를 잡기 어렵다.

2. 史書에서 성한왕 찾기

그렇다면 성한은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로 설정하더라도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연구자들의 고민이었다. 그것이 성한의 연구사를 이루고 있다. 성한을 어느 인물로 인식했는가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뉘지는데 첫째가 金姓의 시조 알지, 둘째가 알지의 아들 세한, 셋째가 김씨 초대왕 미추왕이다. 그 주장들을 1980년대 초까지 제시된 것에 한해서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한다.¹²⁾

우선 星漢을 關智로 주장한 인물에는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와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있다. 그 중에 이마니시는 (가)의 “十五代祖星漢王”을 ‘15대조의 할아버지 성한왕’으로 해석하여 이를 17대조로 만들어 성한을 알지라 했다.¹³⁾ 그러나 스스로도 그러한 해석이 억지라고 생각했는지 얼마 후 성한을 세한으로 수정했다.¹⁴⁾ 그리고 마에마의 견해는 알지와 세한이 동일인이며, 바로 성한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두 번째 견해와 중복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¹⁵⁾

두 번째 견해는 星漢을 勢漢으로 보는 견해로서 이제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견해이다. 이 견해의 주장자로는 마에마 교사쿠, 스에마츠 야스카즈(末松保和), 오사다 나츠키(長田夏樹), 기노시타 레이진(木下禮仁), 문경현이 있다. 이 주장은 문무왕의 16대조 세한과 15대조 성한이 발음도 비슷하고, 세대수도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세

12) 이 글에서는 1983년에 세대수를 새롭게 해석한 김창호의 논문이 발표되기 이전까지의 연구만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13) 今西龍, 1921 「新羅文武王陵碑に就きて」 『藝文』 12-7 ; 1933 「新羅史研究」, 京城: 近澤書店, pp.504~505.

14) 今西龍, 앞의 논문, p.512의 주7)

15) 성한을 알지로 보는 견해는 후에 다시 등장했다(황선영, 1989 「신라의 廟號와 廟號」 『동의사학』 5, pp.25~26).

가지나 있었다.

첫째로는 (가)에 따르면 성한은 왕이었다. 그런데 세한은 왕이 아니었으므로 이것을 설명해야 했다. 이 부분의 해명은 사실상 포기했다.

둘째로는 세대수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설명해야 했다. 이는 불확실한 계보를 약간 보정하거나 세대수 세는 방법을 약간 바꾸면 해결되었으므로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1966년에 오사다는 문무왕이 아니라 문무왕의 아버지 무열왕부터 15대조를 세어 올라가 15대조를 세한이라 했고,¹⁶⁾ 이러한 설명방법은 다른 몇몇 연구자들도 채택했다.¹⁷⁾

셋째로는 김알지와 미추왕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성한을 태조라 했고, (라)에서는 김씨가 성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으므로 왕통으로 첫 번째 왕이거나, 왕이 아니라면 혈통으로 시조라는 뜻이다. 그런데 혈통 시조로는 김알지가 있었고 왕통 시조로는 미추왕이 있었으므로 세한이 성한이 되려면 이 괴리를 어떻게든 설명해야 했다. 이 과제의 해결 방법의 차이가 바로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 차이였다.

1925년에 최초로 연구를 발표한 마에마는 우선 계보도를 수정했다. 『삼국유사』 왕력의 나물왕조에는 나물왕을 구도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소개한 一說을 소개하고 있는데¹⁸⁾ 그것을 채택하여 구도와 말구를 동일인으로 만들어 (D)의 계보를 만들었다.

(D) 關智=勢漢15-阿道14-首留13-郁甫12-
 味鄒王11-
 仇道(末仇)11-奈勿王10-
 -卜好9-習寶8-智證王7-立宗6-眞興王5-眞智王4-龍春3-武烈王2-
 -文武王1

16) 長田夏樹, 1966 「新羅文武王陵碑文初探」 『神戶外大論叢』 17-1·2·3合, p.188.

17) 문경현, 1972 「신라건국설화의 연구」 『대구사학』 4, pp.43~44; 강종훈, 1994 「신궁의 설치를 통해 본 마립간시기의 신라」 『한국고대사논총』 6, p.209.

마에마는 이렇게 문무왕에서 알지에 이르는 세대수를 하나 줄인 다음에는 알지와 세한을 동일인으로 보았다. 세한은 성한을 잘못 기록한 것이고, 옛 기록에 계보를 “閼智勢漢 阿道 首留…”로 하여 세한을 알지의 註로 기입했던 것이 잘못 섞여 들어가 동일인이 두 사람, 두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다.¹⁹⁾

그리고 마에마의 남은 과제는 문헌기록의 김씨 초대왕 미추왕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炤知王 이전의 기록은 믿을 수 없고 奈勿王 이전에는 신라가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졌다는 당시 일본학자들의 통설에 따라 ‘미추왕’을 제13대왕의 이름으로 보지 않고 ‘밀왕’, 즉 근본왕, 시조왕의 뜻으로 쓴 보통명사로 이해하여 架空의 왕으로 간주했다.²⁰⁾ 이 견해는 이후로도 다른 연구자들이 미추왕을 가공의 인물로 만들 때에 종종 이용되었다.²¹⁾

약 30년 뒤 1954년에 스에마츠는 새로운 견해를 발표했다. 星漢은 ‘불한(purkhan)’을 표기한 것으로 ‘熱漢(勢漢)’과 뜻으로 통하는 존재이며, 赫居世의 별명 ‘불구내’와는 소리로 통한다고 했다. 결국 성한은 지극히 관념적인 조상으로 즉 허구적인 존재라는 것이다.²²⁾

18) “金氏 父仇道葛文王 一作未召王之弟 末仇角干”(『삼국유사』 권1, 왕력 第十七奈勿麻立干)

19) 前間恭作, 1925 「新羅王の世次と其名につきて」 『東洋學報』 15-2, p.62;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會研究室編, 1974 『前間恭作著作集』 下, 京都大學國文學會.

20) 前間恭作, 앞의 논문, p.64.

21) 末松保和, 1954 「餘說一金氏始祖考」 『新羅史の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p.107. 그러나 변태섭은 그것이 바로 제13대 미추왕이 시조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687년(신문왕 7)에 종묘에 봉안된 태조를 미추왕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성한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변태섭, 1964 「廟制의 변천을 통하여 본 신라사회의 발전과정」 『역사교육』 8, p.63, p.66).

22) 스에마츠는 星漢은 ‘불한’으로서 ‘불한’과 같은 말인데 불은 뜨거운 熱과 통하므로, 星漢은 바로 ‘熱漢’이며 ‘勢漢’은 잘못된 표기라고 주장했다(末松保和, 1954 앞의 논문, pp.111~112).

이어서 1966년에 기노시타는 신라 초기의 계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선학들의 연구를 수용하여 새롭고 독특한 견해를 창조했다. 中古 시기에는 半전설적이고 半역사적인 ‘날(奈乙/日=해)’이라는 뜻의 ‘나물왕(奈勿王)’을 문벌귀족을 포함한 여러 왕족의 공통된 시조로 설정하고, 그 조상으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태양신을 ‘빛나는 칸’이라는 ‘불한/별한(星漢/勢漢/熱漢)’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했으나, 7세기 후반 中代에는 강력한 전제왕권이 성립되고 중앙집권적 율령체제가 수립되면서 중대 김씨 왕족만의 새로운 관념적인 가공의 시조로 ‘밑(근본)왕’이라는 뜻의 味鄒王이 창조되고, 아주 오래전부터 穀靈으로 숭상되었던 闕智가 미추의 조상으로 설정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中古期에성한-나물의 시조전승이 만들어졌고, 中代 전제왕권 기에는 알지-미추의 시조전승이 새롭게 만들어져 함께 공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³⁾ 그런데 중대에 闕智-味鄒型의 시조전승이 星漢-奈勿型의 시조전승을 압도하고 있었는데, 이 두 계보를 합하면서 始祖王, 祖先神, 護國神으로 숭상된 중대 김씨왕족의 시조 미추왕을 中古 귀족·왕족의 시조 나물왕의 앞에 놓았고, 그러니 저절로 세한의 위에 알지가 놓이게 되어 ‘알지-세한(성한)…미추-나물’의 계보가 만들어졌다고 하였다.²⁴⁾ 결국 알지, 성한, 미추왕, 나물왕 가운데 역사적인 실존 인물은 나물왕뿐이고 그마저도 半전설적인 존재로 간주했다.

한편 1972년에 문경현은 박씨의 실제 시조왕은 南解王(날해)이고, 김씨의 실제 시조왕은 星漢王(勢漢)인데, 김씨와 박씨가 오래 전부터 숭상해 온 태양신을 자신들의 시조신으로 설정하면서 김씨는 알지라는 이름으로, 박씨

23) 木下禮仁, 1966, 3 「新羅における始祖系譜の形成過程-闕智·星漢·味鄒·奈勿をめぐって-」 『甲南大學文學會論集』 31, 星漢을 日神으로 간주한 것은 뒤의 11월의 논문에서이다.

24) 木下禮仁, 1966, 11 「新羅始祖系譜の構成-金氏始祖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

는 혁거세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계보 위에 시조신을 올려놓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김씨의 실제 시조는 성한왕이고 김알지(박알지)는 관념적인 시조라 주장했다.²⁵⁾

결국 성한을 세한(열한)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대개 알지와 미추를 가공의 관념적인 시조로 생각했다. 여기서 ‘관념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실재하지 않았다는 관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식과 논리의 유구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다. 즉 비현실적인 설화로 수식된 박혁거세와 김알지가 실재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실 계보에서 초기부터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추고 인식 속에 존재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1980년에 마침내 성한을 미추왕으로 보는 새로운 주장이 이종욱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성한왕이 바로 태조대왕이며 味鄒王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추왕은 금석문대로 문무왕의 15대조인데 후에 문헌기록에서 왕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前王들과의 세대상의 간격을 줄이는 조작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문무왕의 11대조 미추왕과 10대조 나물왕 사이에 4대가 제거된 것으로 생각했다.²⁶⁾ 성한을 미추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15대조라는 장벽 때문이었는데 그 세대수 자체가 조작이라는 간단한 설명으로 성한왕이 미추왕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그 설명이 충분했던 것 같지는 않았다.²⁷⁾

25) 문경현, 1972 앞의 논문, p.40, p.44.

26) 이종욱, 1980 『신라상대왕위계승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pp.137~140. 그 이전에 변태섭은 김씨 왕통의 시조가 미추왕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미추왕 위의 알지부터 구도까지 6대는 나중에 김씨 왕실의 기원이 오랜 것인 것처럼 하기 위해 덧붙여진 것이라 하였다(변태섭, 1964 앞의 논문, p.66).

27) 이종태는 15대조, 24대손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성한왕이 종묘의 태조대왕, 시조대왕이며 그가 바로 미추왕이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리

Ⅲ. 왕통세대수와 혈통세대수

15대조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1977년에 興德王陵碑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 비석 조각 중에는 ‘태조성한(太祖星漢)’ ‘24대손(廿四代孫)’이라고 새겨진 조각도 있었다. 그것은 조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발견된 것이어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흥덕왕이 태조 성한의 24대손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기록이었다. 왜냐하면 宣德王은 성한왕의 15대손 문무왕과 4세대 차이가 나므로 성한의 19대 손이 되고, 원성왕은 선덕왕과 2세대 차이가 나서 21대손이 되므로²⁸⁾ 원성왕의 손자 흥덕왕은 23대손이 되어야 맞는다. 그런데 왜 24대손이라고 새겼을까? 세대수의 해명은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연구자들은 이 세대수에 정상적인 부자조손 관계와는 다른 무언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듯이 감지하게 되었다.

1983년에 이르러 마침내 김창호가 15대조라는 기록의 해석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성한왕은 미추왕이라고 주장했다.²⁹⁾ 그는 문무왕릉비의 15대조라는 표현을 혈통계승 순서가 아니라 왕위계승 순서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고구려 광개토대왕비문의 기록을 들었다. 광개토대왕비에는 혈통으로 大朱留王(大武神王)의 10세손인 광개토왕이 17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광개토왕은 제19대왕으로, 제3대 대무신왕부터 왕위계승 순서로 세면 정확히 17번째에 해당되었다. 이 방법을 성한왕에 적용시켜 보면 미추왕은 문무왕의 15대조가 된다. 제30대 문무왕부터 왕위계승 순서를 거꾸로 세어 올

고 ‘星漢’의 ‘漢’은 ‘韓’과 통하며 그것은 ‘크다’는 뜻으로서 성한이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라는 의미라고 추정했다(이종태, 1999 「신라의 시조와 태조」 『백산학보』 52, p.17, p.19).

28) 『삼국사기』에 선덕왕은 나물왕의 10세손, 원성왕은 12세손이라 하였다(『삼국사기』 권 9, 신라본기9 宣德王 ; 권10, 신라본기10 元聖王).

29) 김창호, 1983 「신라 태조성한의 재검토」 『역사교육논집』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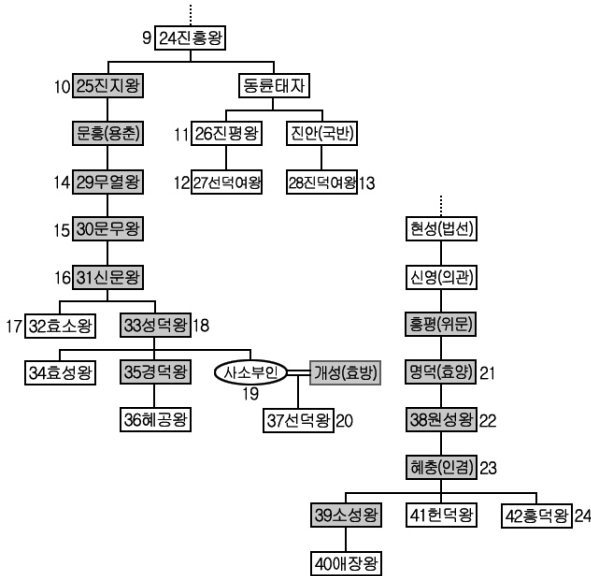
라가면 제13대 미추왕은 문무왕의 18대조가 되어야 하지만 그 사이에 제14대 유례왕, 제15대 기림왕, 제16대 흘해왕은 昔氏이므로 이들 셋을 빼면 미추왕은 바로 문무왕의 15대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흥덕왕릉비의 '24대손'은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흥덕왕은 제42대왕이고 미추왕은 제13대왕이며 그 사이에 석씨 왕 셋이 끼어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흥덕왕은 왕통세대수로 미추왕의 27대손이 된다. 이것은 흥덕왕릉비에서 흥덕왕을 성한의 24대손으로 표현한 기록과 어긋난다.

그래서 김창호는 미추왕부터 흥덕왕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눠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세대수를 세었다. 우선 제13대 미추왕부터 제33대 성덕왕까지는 왕위계승 순위로 세어 성덕왕을 미추왕의 18대손으로 하였다. 제30대 문무왕이 미추왕의 15대손이므로 제33대 성덕왕은 당연히 18대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덕왕 다음의 제34대 효성왕부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세대수를 세었다. 宣德王 때에는 聖德王과 開聖王이 五廟에 祔廟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때에는 단순한 왕위 계승 순서가 아니라 '오묘제에 의한 직계조 인식 방법'이 세대수 셈법에 적용되었다고 생각했다.³⁰⁾ 그래서 효성왕, 경덕왕, 사소부인을 19대손, 그리고 사소부인의 아들 선덕왕을 20대손으로 보았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선덕왕이 나물왕의 10세손이고 원성왕은 12세손이라 하여 서로 2세대 차이가 나므로 20대손 선덕왕의 2세대 뒤의 인물인 원성왕을 22대손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 원성왕의 손자 흥덕왕은 24대손이 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김창호는 성한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이었던 15대조라는 표현을 새롭게 해석하여 세대수 셈법의 돌파구를 열었다. 그러나 어찌될 일인지 그의 연구는 주목받지 못했고, 여전히 알지와 미추왕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성한이 세한 또는 알지라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30) 김창호, 1983 앞의 논문, p.103.



〈그림 1〉 김창호의 미추왕손 왕통세대수 이해
 * 회색 사각형의 왕은 종묘에 부묘된 왕
 * 네모는 남성, 타원은 여성, 숫자는 미추왕의 ○○대손 표시

김창호의 주장은 얼핏 보면 15대조, 24대손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기 쉬웠다. 예컨대 당시에 이미 부계 계보의식이 확고했는데 어떻게 혈통 계승 순서를 버리고 왕위 계승 순서를 세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다.³¹⁾ 세대수를 세는 기준이 도중에 바뀌는 이 이상한 셈법을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어찌 보면 당

31) 강중훈, 1994 앞의 논문, p.207. 강중훈은 고구려의 세대수 셈법이 신라 중대에도 통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타국의 사례를 원용하는 것은 논지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고구려의 세대수 셈법이 신라 중대에 통용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논지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지만 고대사 연구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들은 무수히 많다.

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왕가의 세대수 셈법이 일반인과 달랐을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통일신라 때보다도 더 부계의식이 확고했던 조선시대에도 왕실의 세대계승은 일반인과 다르게 인식되었다. 1400년(정종 2)에 제2차 왕자의 난이 진압된 뒤 定宗의 친동생 靖安公 이방원은 정종의 王世弟가 아니라 王世子로 책봉되었다.³²⁾ 중국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722년에 唐 中宗의 아우 睿宗이 중종과 함께 나란히 太廟에 祔廟되었고, 846년에는 敬宗, 文宗, 武宗 삼형제가 나란히 부묘되었다.³³⁾

그런데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김창호의 설명에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

첫째, 이러한 셈법으로는 선덕왕이 10세손이고 원성왕이 12세손이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설명할 수 없었다.³⁴⁾ 김창호의 셈법으로는 선덕왕이 나물왕의 19세손, 원성왕은 21세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³⁵⁾

그러나 그 의문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당시 왕가의 세대수 셈법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다. 우선 특별히 왕가에만 적용되는, 왕위계승 순서를 표현한 왕통세대수가 있었을 것이다. 왕통세대수는 같은 김씨 성씨 안에서 왕위 계승순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단순하게 적용되었다. 그래서 미추왕이 문무왕의 15대조가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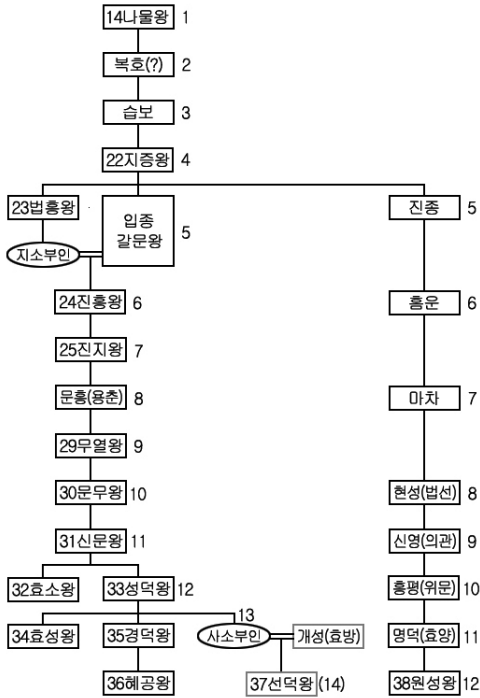
32) 『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2월 기해.

33) 戶崎哲彦, 1989 「唐代における太廟制度の變遷」 『彦根論叢』 262·263合, pp.384~388(나희라, 1997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한국사연구』 98, p.80에서 재인용).

34) 신라 왕실 계보에 관한 금석문 기록과 『삼국사기』 기록의 괴리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겼다(이기동, 1978 「신라 태조 성한의 문제와 흥덕왕릉비의 발견」 『대구사학』 15·16합, pp.9~10).

35) <그림 1>에서 선덕왕과 원성왕은 각기 미추왕의 20세손, 22세손인데, 나물왕은 미추왕 바로 다음의 김씨 왕이므로 1세대를 줄이면 된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세대수 셈법이 있었다. 그것은 왕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자조손 관계를 표현한 혈통 계승순서로 세는 혈통세대수였다. 『삼국사기』에서는 원성왕이 나물왕의 12세손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혈통세대수였다. <그림 2>를 보면 원성왕은 혈통세대수로 나물왕의 12세손이 되는데³⁶⁾ 이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일치한다.



<그림 2> 선덕왕과 원성왕의 선대 계보와 혈통세대수

『삼국사기』에서 원성왕이 다른 왕들과는 달리 특별히 나물왕의 몇 세손이라고 소개된 것은 이유가 있다. 왕위는 대개 지극히 가까운 부자관계나 형제관계에 의해 계승되므로 혈통 계승순서를 곧 알 수 있기 때문에 혈통세대수를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 그런데 왕위가 아주 가까운 아들이나 아우에게

36) 나물왕과 원성왕 사이의 계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이용하여 채우되, 두 사서에 기록이 남지 않은 지증왕과 摩次(摩叱次) 사이의 眞宗과 欽運은 부득이 『敬順王殿碑』(1814)의 기록을 이용하여 채운다(朝鮮總督府편, 1919 앞의 책, p.1265).

계승되지 않고 아주 오래 전에 혈통이 방계로 분기되어 혈연계보를 잘 알기 어려운 인물에게 계승되면 그가 앞의 다른 왕들과 어떤 혈연관계에 있는 인물인지를 알리기 위해 혈통세대수를 기록했다. 원성왕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원성왕의 선대는 지증왕 때 原宗(法興王)과 立宗, 眞宗으로 갈라졌고 진종의 후손인 원성왕이 즉위했을 때에는 지증왕이 사망한 지 271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그래서 혈통세대수를 밝혀둔 것이다.

그렇다면 宣德王의 경우에는 聖德王의 외손이므로 혈연관계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나물왕의 10세손이라고 굳이 『삼국사기』에 기록했을까? 선덕왕은 『삼국사기』에 나물왕의 10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림 2〉에서 나물왕에서 선덕왕에 이르기까지 세대수를 세면 선덕왕은 나물왕의 14세손이 된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선덕왕이 나물왕의 10세손이라고 했던 것은 혈통세대수를 셀 때에 부계로만 센 것이다. 즉 중간에 사소부인을 개재시키지 않은 것이다. 근친혼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부계, 모계를 뒤섞어 세대수를 세면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계로만 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³⁷⁾ 그것은 나물왕에서 선덕왕으로 이르는 사이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선덕왕의 직계조와 성덕왕의 직계조가 형제로 분기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김창호의 설명이 미진했던 점은 왕통세대수 셈법이 왕위 계승 순서에서 혈통 계승 순서로 바뀐 시점의 문제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왕통 세대수 셈법에 직계조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은 종묘의 부모 원칙과 관계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왕통세대수 셈법이 바뀐 시점을 찾는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종묘 설립 시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신문

37) 〈그림 2〉에서 입종갈문왕이 형(범흥왕)의 딸 지소부인과 결혼하여 지증왕을 낳았으므로 모계가 포함되면 14대손에 지소부인까지 개재되어 15대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밝혀진 한 예일 뿐이고 나물왕에서 선덕왕에 이르는 사이에 또 다른 근친혼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므로 모계를 섞어서 세대수를 세면 매우 다양한 결과가 나와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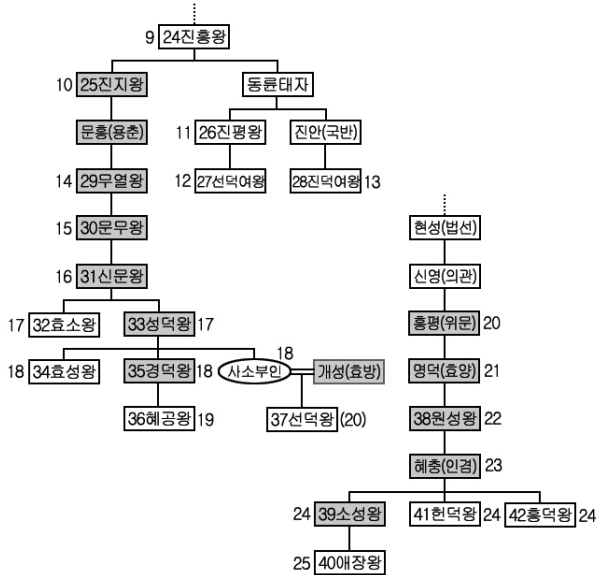
왕 때에는 이미 종묘가 설립되어 있었다. 『삼국사기』 신문왕 7년의 기사에 의하면 신문왕 때에 이미 종묘가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무열왕이나 문무왕이나 신문왕 때에 종묘가 설립되었을 터이고, 그때부터 직계조 인식을 적용한 왕통세대수 셈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했다. 그러나 김창호는 그 시점을 선덕왕 때로 보았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왕위계승순서로는 6대가 지나고, 시간적으로는 100년 가까이 지난 선덕왕 때에 이르러서야 ‘5묘제에 의한 직계조 인식방법’으로 세대수를 세는 기준이 바뀌었는지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³⁸⁾

그런데 그가 그 시점을 선덕왕 때로 잡은 것은 아마도 흥덕왕이 미추왕의 24대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흥덕왕의 조부 원성왕이 22대손이 되어야 하고, 원성왕의 2세대 위인 선덕왕은 20대손이 되어야 하며, 선덕왕의 외조부 성덕왕이 18대손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선덕왕때부터 바뀐 것으로 해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흥덕왕은 미추왕의 24대손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왕통세대수 셈법은 혈연적인 부자조손 관계를 중시하는 종묘가 설립되었을 때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묘의 건립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의 왕통세대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부계 혈통세대수와 일치한다. 그런데 종묘는 무열왕 이후 설립되었으며, 『삼국사기』의 687년(신문왕 7) 기록에 다섯 왕이 모셔진 祖廟가 보이므로 늦어도 그 이전에는 설립되었을 것이다. 세대수 셈법이 그때 바뀌었다는 전제 하에 진흥왕 때부터 애장왕 때까지 왕통세대수를 표시한 결과가 <그림 3>이다.³⁹⁾

38) 김창호는 그 이전 해공왕 때의 오묘제 개혁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설명했지만 해공왕 때의 오묘제 개혁은 무열왕과 문무왕을 불천위로 모신다는 것이었지 세대수 셈법과는 간접적으로도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39) 무열왕부터 신문왕까지는 왕위가 직계로 계승되었으므로 종묘 설립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잡더라도 세대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림 3) 미추왕손의 왕통세대수

* 회색 사각형의 왕은 중요에 부묘된 왕

* 사각형 좌우의 숫자는 미추왕의 ○○대손 표시. ()안의 숫자는 모계가 개재된 세대수

우선 문무왕릉비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682년(신문왕 2) 7월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⁰⁾ 그래서 문무왕릉비에 미추왕이 문무왕의 15대조라고 새겼을 것이다. 신문왕 때에는 세대수 셈법이 바뀌어 혈통세대수 셈법을 적용해야 했다. 따라서 제31대 신문왕은 16대손이 되고, 제32대 효소왕과 제33대 성덕왕은 17대손이 되며, 제34대 효성왕, 제35대 경덕왕과 사소부인

40) 이마니시는 비문을 지은 사람이 國學少卿이고, 국학은 682년(신문왕 2) 6월에 설립되었으므로 비석은 682년 이후의 것이라고 고증했다(今西龍, 1921 앞의 논문, p.503; 葛城未治, 1935 『朝鮮金石攷』, 京城: 大阪屋號書店). 그리고 김창호는 25일 景辰(丙辰)의 간지에 해당되는 날을 찾아 신문왕 2년 7월 25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김창호, 1983 『永川 葦堤碑 貞元十四年銘의 재검토』 『한국사연구』 43, p.126). 그 설을 따른다.

은 모두 혈연적으로 같은 세대이므로 18대가 되었고, 제36대 혜공왕은 19대 손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김창호와 변경시점만 다를 뿐 셈법은 똑같으므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18대손 사소부인의 아들이며 17대손 성덕왕의 외손인 제37대 선덕왕은 미추왕의 20대손이 되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 후에 개성대왕으로 추봉된, 성덕왕의 사위 효방은 성덕왕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므로 성덕왕을 통해 미추왕의 몇 대손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소부인이 18대손이므로 신라왕실은 그 아들 선덕왕을 20대손으로 배정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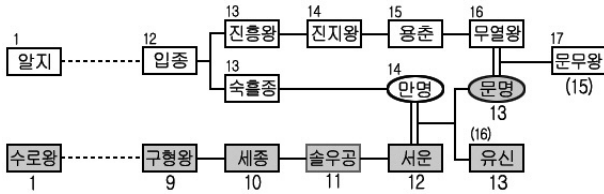
어떤 인물이 누구의 몇 대손인가를 정하려 할 때에 世系를 잃었거나 성씨, 즉 시조가 달라 부계만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계를 혼합하여 세대수를 셀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는 모계 1세대를 부계 2세대에 준하는 것으로 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증거자료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수록된 문무왕의 制書이다.

문무왕은 자신이 수로왕의 9대손인 구형왕의 증손자 庶云(舒玄)의 외손이므로 수로왕이 자신에게 15대시조가 된다고 하였는데,⁴¹⁾ 그것은 모계 1세대를 부계 2세대로 산정한 결과로 이해된다.

중대에 김씨 왕실이 자신들의 조상을 少昊 金川氏에 연결시켰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무열왕이나 문무왕이 그런 것은 이해가 되나 김유신 묘비에 의하면 김유신도 소호 금천씨의 후예로 알려져 있었다. 김유신의 시조는 수로왕이고 무열왕의 시조는 김알지이니 아무리 위로 거슬러 올라가도 도저히 부계로는 같은 후손일 수가 없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맺어온 김유신과

41) “泊新羅第三十王法敏龍朔元年辛酉三月日 有制曰 朕是伽耶國元君九代孫仇衡王之降于當國也 所率來子世宗之子 率友公之子 庶云匣干之女 文明皇后 寔生我者 元君於幼冲人 乃爲十五代始祖也 所御國者已曾敗 所葬廟者今尙存 合于宗祧 續乃祀事”(『삼국유사』 권2, 기이2 駕洛國記).

무열왕 김춘추의 굳건한 유대가 중대 왕실 초기에 두 가문을 하나로 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림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무왕이 수로왕계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문명황후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김유신이 김알지계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만명부인이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즉 모계가 반드시 섞이게 되어 있다.⁴²⁾ 그럴 경우 혈연적인 親疎관계에서 모계를 부계로 변환하여 표현해야 하는데 이때 모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문무왕의 制書を 계보로 표현한 <그림 4>를 보면 문명황후가 수로왕의 13대손인데 그 아들인 문무왕이 자신을 수로왕의 15대손이라고 밝힌 것은 모계가 개재될 경우 모계 1세대를 부계 2세대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⁴³⁾



<그림 4> 문무왕 制書の 문무왕 선대 계보도

* 회색은 수로왕계, 흰색은 알지계

* 네모 또는 타원 아래 중간의 큰 숫자는 수로왕계 세대수, 왼쪽 위의 작은 숫자는 알지계 세대수, () 안의 숫자는 모계가 개재된 세대수

- 42) 『삼국사기』에 따르면 수로왕의 9세손 구형왕은 김유신의 증조부이므로 김유신은 수로왕의 12세손인데, <그림 3>에서 13세손이 된 것은 중간에 率友公(率友公)이 끼어 1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무라카미 요시오(村上四男)는 솔우공은 世宗(世宗)의 아우인데 가계를 계승하였으므로 세종의 아들로 바뀐 것으로 이해했다(村上四男, 1961 『金官國の世系と率友公(率友公)』 『朝鮮學報』 21·22合). 이는 이방원이 定宗의 왕세자가 된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 어떤 문헌이 옳은가, 또는 무라카미의 해석이 타당한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註11 참조). 문무왕이 솔우공을 세종의 아들로 인식했고 문무왕의 인식에 따라 세대수를 세면 그만이다.
- 43) 모계 1세대를 부계 2세대로 간주하는 것은 혈연적인 親疎관계 인식에 적용되는 것이고, 혈통의 위계서열 인식에서는 모계 1세대도 부계 1세대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원칙을 <그림 3>에서 사소부인의 아들 선덕왕에 적용해 보면 사소부인이 미추왕의 18대손이므로 사소부인의 아들 선덕왕은 모계 1세대를 부계 2세대로 간주하는 원칙에 따라 20대손이 된다. 그리고 선덕왕 뒤에 원성왕이 즉위했을 때에는 원성왕이 선덕왕과 2세대 차이가 나므로 22대손이 되었고, 원성왕의 손자 흥덕왕은 24대손이 된 것이다.

왕통순위는 『삼국사기』에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다. 『삼국사기』에 등재된 순서대로 세면 곧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석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선왕들에 대한 순차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과 관련된 사실을 금석문에 기록할 때에는 당연히 왕통순위가 중시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한왕이 비문에 문무왕의 15대조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문무왕릉비문의 ‘星漢王’ 앞에 ‘十五代祖’라는 덧말이 붙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시조대왕이 태조대왕이고 그가 미추왕이라는 사실에 접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대수 셈법의 장벽에 막혔고, 우연히도 혈통세대수 15대조 근처에 비슷한 발음의 제한이 있었던 것이 이제까지 큰 혼란을 초래했다.

성한왕이 미추왕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나면 문무왕릉비 전면 5행 아랫부분의 稔侯 金日磾의 고사와 관련된 ‘투후제천지운전칠엽(稔侯祭天之胤傳七葉)’이라는 글귀가 왜 등장했는지 충분히 이해되며, 거꾸로 성한왕이 미추왕이라는 심증도 굳어진다.

‘稔侯祭天之胤傳七葉’에 바로 이어지는 6행 윗부분에는 “十五代祖星漢王降質圓穹…”이 있으므로⁴⁴⁾ 이 부분은 태조 성한의 先代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미추왕의 선대 金闕智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

첫째 ‘김일제(금일제)’와 ‘김알지’는 이름이 비슷하다. 둘째 흥노의 休屠王

44) 김창호, 1986 「문무왕릉비에 보이는 신라인의 조상의식-太祖星漢의 添補-」 『한국사 연구』 53, p.22의 판독문에 따름.

이 金人을 만들어 祭天하는 신주로 삼았기에 김일제가 金姓을 하사받았는데,⁴⁵⁾ 김씨의 혈통 시조 김알지도 金櫃에서 나온 金人이라서 金氏가 되었다. 셋째 김일제는 휴도왕의 태자였고 김알지도 탈해왕에게 거두어져 태자로 책립되었다.⁴⁶⁾ 넷째 김일제는 태자이지만 아버지 휴도왕이 霍去病의 군사에게 공격당하는 과정에서 항복하지 않으려다 昆邪王에게 피살되었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가 왕실이 몰락함으로써 왕위에 오르지 못했는데, 김알지의 경우에도 석탈해가 죽은 뒤 왕위가 다시 박씨에게 넘어가 석씨 왕통이 끊어지고 석씨 집안이 몰락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다섯째 김일제는 투후로 임명되어 그의 후손 7대가 內侍로 관리 생활을 하면서 번성하였는데, 김알지의 경우에도 7세손 미추왕이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김알지의 후손들은 왕실의 관리로 있었을 것이다. 결국 ‘秬侯祭天之胤傳七葉’이라는 말은 김알지의 후손들이 7세 미추왕에 이르기까지 신라 왕실의 관리로 성장해서 마침내 미추왕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된 사실을 흥노족 출신 투후 김일제의 이야기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바로 뒤를 이어서 바로 성한 왕, 즉 미추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다.

또한 ‘七葉’이란 표현을 쓴 것도 이유가 짐작된다. 그 바로 뒤에 15대조 성한왕의 ‘十五代’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순수한 왕통세대수를 세는 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혈통세대수로 센 7대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7代라고 쓰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왕통세대수로 센 15代와 뒤섞여 혼란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7대라는 표현 대신에 7엽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왕통세대수는 ‘대’로 혈통세대수는 ‘엽’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왕실의 세대수 셈법에 두 가지 종류의 셈법이 존재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45) 『漢書』 권68, 霍光金日磾傳.

46) 『삼국유사』에서는 김알지가 석탈해의 태자로 책립되었다고 했고(『三國遺事』 권1, 紀異2 金閼智脫解王代), 『삼국사기』에서는 석탈해가 김알지를 하늘이 내게 준 아들이라고 하여 거둬 길렀다고 했다(『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脫解尼師今 9년).

IV. 태조 미추왕

이제까지 미추왕이 왜 문무왕의 15대조이며, 흥덕왕의 24대조인지 설명했다. 15대조, 24대조 셈법의 장벽이 제거되고 나면, 이런 상태에서는 김알지나 그 아들 세한(열한)을 성한왕이라고 하기 어렵다. 김알지는 연구자들이 성한왕 후보에서 이미 오래 전에 제외했으므로 미추왕과 세한만을 대상으로 놓고 성한왕일 가능성을 따져보면 미추왕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것은 한두 가지 점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선 성한은 왕이었다. 그러나 미추왕은 왕이었고 세한은 왕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미추왕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성한왕은 왕 중에서도 태조이다. 왕실의 혈통이 바뀌어 나라의 시조와 왕실의 시조가 분화되면 새로 들어선 왕실의 시조는 太祖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⁴⁷⁾ 미추왕은 박씨, 석씨의 뒤를 이어 김씨로서는 최초로 왕위에 오른 미추왕이 태조일 가능성, 즉 성한왕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세한은 그렇지 않다. 앞서 세한이 왕이 아니므로 성한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였으나 세한이 死後에 왕으로 추봉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⁴⁸⁾ 그러나 왕으로 추봉되더라도 태조라는 이름이 붙을 수는 없다. 조선시대의 경우 이성계의 고조부를 사후에 穆祖라는 이름으로 왕으로 추존했지만 그에게 태조라는 칭호는 부여하지 않았다. 왕위에 오르지 못했는데 태조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은 우리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⁴⁹⁾

47) 고구려에도 시조는 朱蒙이지만 太祖大王은 따로 있다. 왕위가 소노부에서 계루부로 넘어가고 난 뒤 계루부 첫 왕에게 太祖라는 칭호가 올려졌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유력한 설로 인정받고 있다(김철준, 1956 「고구려, 신라의 관계조직의 성립과정」 『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48) 재미하는 세한을 성한으로 추정하고 무열왕이나 문무왕 때에 왕으로 추봉되었을 것이라 하였다(채미하, 2002 「신라 종묘제의 수용과 그 의미」 『역사학보』 176, p.56).

미추왕은 시조이자 태조였다. 『삼국사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를 막론하고 여러 왕들이 박혁거세를 모신 시조묘를 찾아 제사지낸 것을 ‘謁始祖廟’ 또는 ‘親祀始祖廟’로 기록했다. 그런데 미추왕 때에만 ‘親祀國祖廟’라는 표현을 썼다.⁵⁰⁾ 이는 후대에 역사를 편찬하면서 김씨 왕통의 시조 미추왕이 나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는데始祖가 ‘始祖廟’에 제사를 지냈다고 표현하면 이상해지므로 김씨 왕통의 시조가 나라의 시조묘에 제사지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國祖廟’란 표현을 쓴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미추왕은 시조이자 태조였다. 종묘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해공왕 때의 5묘제 기록에 미추왕이始祖大王으로 등장하고, 신라본기 신문왕 7년 기사에는太祖大王이 등장하는데 그 태조대왕은 바로始祖大王이며 미추왕이다. 물론 진흥왕순수비에 등장하는太祖도 미추왕이다.

미추왕을 성한왕으로 이해하면 이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김유신의 영혼이 왜 味鄒王陵에 들어가 억울함을 호소했는지, 미추왕의 능을 왜 大陵이라 했는지, 그리고 미추왕의 사당을 大廟라 하여 박혁거세의 五陵보다 더 격이 높은 것으로 인식했는지 확연히 이해된다.⁵¹⁾

성한왕이 미추왕이라는 것은 ‘문무왕의 15대조’라는 것만 빼면 나머지 여러 자료로 보건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숫자를 재해석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동안 성한왕의 실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숫자로

49) 중국의 경우 추봉된 왕을 太祖로 부른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나라의 경우 高祖 李淵의 아버지 李昞과 할아버지 李虎를 각각 元皇帝, 景皇帝로 추송하고 할아버지 景皇帝를 첫 번째 황제라고 해서 太祖라고 불렀다(姜波, 2003 『漢唐都城禮制建築研究』, 北京: 文物出版社, p.208). 그러나 그도 太廟의 太祖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문헌에서는 물론이고 성한왕처럼 금석문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주 거론되지도 않았다. 그저 이름만 太祖였던 셈이다.

50)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味鄒尼師今 2年.

51) 『삼국유사』 권1, 기이2 未鄒王竹葉軍.

기록된 15대조는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사실로 인정하고, 성한왕이 미추왕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문자기록은 숫자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모두 허구, 조작, 오류 또는 부분적인 착오로 간주했다. 이런 경향은 신라 上古 시기에 관한 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초기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 경향과 맞물려 증폭되었다. 그 결과 한 비석에 새겨진 ‘十五代祖’ 네 글자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수많은 기록을 허황된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성한왕이 미추왕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여러 기록을 보면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미추왕이 은하수왕이며 용왕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한왕이 바로 미추왕이었다는 추정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

V. 은하수왕과 용왕

1. 미추왕과 은하수

왜 미추왕을 성한왕이라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味鄒’는 우리말 소리 그대로 쓴 것이고 ‘星漢’은 미추의 뜻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기로 한다.

문무왕릉비의 ‘星漢王’과 흥덕왕릉비의 ‘太祖星漢’은 김인문묘비에는 ‘漢王’으로 표기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금석문에 등장하는 星漢을 『삼국사기』의 勢漢과 같은 인물로 간주했다. 그것은 ‘星漢’이라는 글자가 뜻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표기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漢王’은 ‘星漢王’의 약칭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는 허점이 있다. 고귀한 왕의 이름을, 그것도 가장 고귀한 시조대왕의 이름을 비문에 간략하게 줄여서 새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그런 사례도 없다.⁵²⁾ 결국 ‘星漢’

52) 앞에 나온 광개토태왕비문의 大朱留王(大武神王)이 大解朱留王의 약칭 사례가 아닌가

이란 뜻으로 표기한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勢漢을 星漢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星漢王을 漢王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둘이 모두 같은 뜻을 담은 말이기 때문이다. 漢, 星漢은 은하수라는 뜻이다. 銀河水는 漢, 星漢, 天漢, 銀漢, 星河, 天河 등으로 부른다.⁵³⁾ 그러므로 星漢王과 漢王은 모두 ‘은하수왕’이라는 뜻을 담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중대 김씨 왕실이 은하수에서 發源했다는 생각의 결정적인 증거는 김인문묘비에 있다. 묘비 제11행에 “특별한 줄기가 은하수에서 나와 파의 근분이 되었다(別幹發星河以派原)”라는 대목이 있는데⁵⁴⁾ 이는 무열왕에서 문무왕·김인문으로 이어지는 혈통 줄기가 은하수, 즉 星漢에서 따로 나와 김씨 왕실의 派原을 이루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문무왕릉비는 중대 왕실의 신성관념이 하늘의 별로 수식되어 있었다는 것을 뒷부분에서 다시 보여준다. 뒷면의 문무왕의 사망과 화장에 관한 기록에 이어 ‘入昴’라는 구절이 보이는데,⁵⁵⁾ 묘수(昴宿)는 28수 별자리 중의 하나로서 西方 7수(七宿) 규루위묘필자삼(奎婁胃昴畢費參)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별이다. 문무왕이 죽어서 하늘의 서쪽 별자리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서방 아미타불의 극락정도에 왕성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리왕 解累利, 대무신왕 解味留, 민중왕 解色朱, 모본왕 解愛婁의 ‘解’는 『삼국유사』에 姓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삼국유사』 권1, 왕력1), 또 성으로 인정된다(김용선, 1980 『高句麗 瑠璃王 考』 『역사학보』 87, pp.52~54). 성을 빼고 부른 것을 이름을 줄여 부른 것과 동질의 것으로 말할 수는 없다.

53) 『毛詩正義』 권13, 小雅 谷風之什 大東 “維天有漢 監有亦光(『傳』 漢 天河也 有光而無所明)” ; 『天文類少』 上卷, 52葉 “天河亦以名天漢”; 諸橋徹次, 1985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7권 p.222; 羅竹風(主編), 1991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6권 p.47.

54)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編, 1992 앞의 책, p.136.

55)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編, 앞의 책, p.126, 제3행 “宮前寢時年五十六”, 제5행 “燒葬卽以其月十日火”, 제13행 “卽入昴忘歸…”.

이다. 이어서 제16행 3~5열에 보이는 ‘待星精’은 문무왕이 서방 극락정토에서 모든 별의 精이며 시조인 은하수 星漢王을 모시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하수는 왜 모든 별의 精인가? 남성의 精과 여성의 血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특히 精은 중국 고대의 醫書인 『內經』 이후로 인간 탄생의 가장 중요요소로 생각했다.⁵⁶⁾

은하수를 모든 별을 탄생하게 하는 精의 집결체로 본 관념은 「高麗世系」에 전해 온다. 왕건의 증조부 損乎述(寶育)은 鵠嶺에 올라 오줌을 누어 삼한 산천을 銀海로 잠기게 하는 꿈을 꾸었다. 김유신의 누이이자 문무왕의 어머니인 文姬의 꿈 이야기와 작제건의 아내이자 왕건의 할머니인 辰義의 꿈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줌을 누어 천하를 잠기게 하는 꿈은 앞으로 천하를 제패할 제왕을 낳을 것이라는 예지몽이다. 따라서 남성인 손호술의 은빛 오줌은 제왕을 낳게 한 생명의 근원인 희뿌연 은빛 精이다. 앞서 말했듯이 精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므로 銀海는 모든 별의 근원인 銀河水이다.⁵⁷⁾ 따라서 오래 전부터 제왕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北極五星도 은하수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라 왕실의 왕들은 은하수왕, 즉 성한왕에서 나왔다는 관념과 합치된다.

中代에 은하수와 별을 둘러싼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 전에는 다른 방식의 이야기가 있었다. 시조 혁거세가 탄생한 나정은 星浮山の 별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선덕여왕이 태어난 경주 첨성대에서는 우물모양의 대에서 별을 쳐다보았다. 별은 남성의 화신인 말을 내리거나 별빛을 내려 우물에 수정함으로써 위대한 인물을 태어나게 했다. 이처럼 하늘의 천체(해, 별)와 땅의 물(우물, 샘, 못, 늪)이 결합하여 사람이 태어나는 서사

56) 김호, 2000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p.190.

57) 정연식, 2011(b) 앞의 논문, p.349.

구조는 부여, 고구려, 백제, 가야에도 있었고 중국, 일본에도 있었다.⁵⁸⁾ 그런데 이러한 성적인 은유를 강도 높게 담고 있는 토속적인 이야기는 합리적인 유교 이념을 숭상하는 중대 왕실에게는 황당하고 민망하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중대 왕실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신라에서 남성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북극오성은 그대로 두었다. 그 대신에 여성의 생식기, 産道 모양의 우물을 폐기하고 그 대신에 하늘의 胎를 상징하는 三台六星을 등장시켰다.⁵⁹⁾ 제왕의 상징인 北極五星이 胎를 상징하는 三台六星에 잉태되어 지상에 강림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다.⁶⁰⁾ 이때 북극오성의 근원으로 은하수를 상징했고, 김씨 왕실의 시조인 미추왕은 성한왕, 즉 은하수왕이 되었던 것이다.

2. 미추왕과 용

미추왕이 은하수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관념적인 면에서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미추왕을 은하수왕으로 만드는 데는 ‘味鄒’의 발음이 한 몫을 했다. 미추는 용이고 용은 은하수였으므로 미추왕은 은하수왕, 즉 성한왕이 되기에 적합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은하수가 용으로 생각되었다는 관념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제주도 방언에서 은하수를 ‘미리내’라 한다. 그리고 제주도, 경상도 방언에서 ‘미리’는 龍이고, 중세국어에서도 ‘미르/미리/미르[mirV]’는 용을 가리켰다.⁶¹⁾ 그리고 하늘에 길게 뻗은 은하수는 내처럼 생겼다. 그래서 은하수를

58) 정연식, 2011(a) 앞의 논문, pp.236~253.

59) 679년(문무왕 19)에 神宮을 증축하면서 신궁 안의 蘿井을 헐어버린 것도 이러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정연식, 2009 앞의 논문, p.376).

60) 삼태육성이 북극오성을 잉태한 것은 신라 종묘에 여섯 구멍이 속의 다섯 향아리로 표현되었다 (정연식, 2011(b) 앞의 논문, pp.344~346 ; 2011(c) 앞의 논문).

61) 음운학에서 대문자 V는 임의의 모음(vowel), 대문자 C는 임의의 자음(consonant)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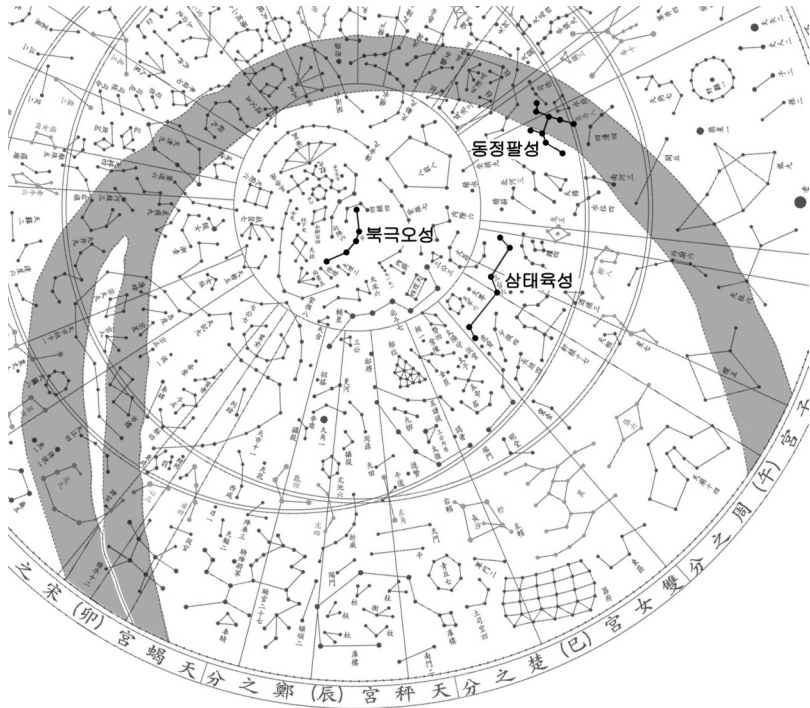
별로 이루어진 하늘의 하천이라 해서 天河 또는 星河라고 했고, 중세국어에서도 별을 뜻하는 ‘이리’에 ‘내’를 붙여 ‘이리내[星川·星河]’라 불렀다.⁶²⁾ 결국 은하수는 하늘의 용 또는 내이다. 그러므로 ‘미리내’란 ‘龍川’을 뜻한다.⁶³⁾ 하늘에 길게 뻗은 은하수가 때로는 하늘의 용으로, 때로는 하늘의 내로 보여 ‘미리내’라 부른 것이다. 옛사람들은 길게 띠를 이루어 하늘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무수히 많은 작은 별들은 기다란 용의 몸에서 반짝이는 무수히 많은 작은 비늘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은하수를 하늘의 용으로 인식했던 옛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고려사』 「高麗世系」에 전하는 왕건의 할머니이며, 作帝建의 아내인 龍女의 이야기가 전해준다.

용녀는 일찍이 송악산 새 집 침실 창 밖에 우물을 파고 우물 속으로 서해 용궁을 드나들었다. 그 우물이 廣明寺 동쪽 上房 북쪽에 있는 우물이다. 늘 作帝建과 약속하기를 “내가 용궁으로 돌아갈 때에는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하루는 작제건이 몰래 엿보았더니 용녀가 어린 딸과 함께 우물 속으로 들어가 함께 황룡으로 변하여 오색구름을 일으켰다. 작제건은 이상히 여겼으나 감히 말하지 않았다. 용녀가 돌아와 화를 내며 말하기를 “부부의 도리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약속을 어겼으니 저는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습니다” 하고는 어린 딸과 함께 용으로 변해 우물 속으로 들어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나타낸다.

- 62) 星山郡의 옛 이름이 一利郡이었듯이(『三國史記』 권34, 志3 地理1) ‘이리’는 별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리내’는 星川, 星河라는 뜻이다. 가야어 ‘이리’는 훗날 신라어 ‘별’에 밀려 사라진 듯하다(천소영, 1990 『고대국어의 어휘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p.107).
- 63) 김형주, 1996 『우리말 발달사』, 세종출판사, p.65.



〈그림 5〉 조선시대 天象列次分野之圖의 은하수와 東井八星 (회색 띠는 은하수)

이 설화에서 용은 하늘의 은하수를 말하며 용녀가 드나든 우물은 하늘의 우물로 상징되어 있는, 28宿 가운데 정수(井宿: 東井八星)로 생각된다. 그리고 용녀의 어린 딸이 있었다는 것은 은하수의 흐름이 두수(斗宿: 南斗六星)와 우수(牛宿: 牽牛六星) 사이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작은 지류를 형성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5〉).

그런데 고대국어에서 용을 뜻하는 소리는 한자 '味鄒'로 표기하려던 소리와 같거나 아주 비슷했던 듯하다.

미추왕은 문헌에 여러 가지로 표기되었는데⁶⁴ 그것을 지금의 한자음으로 읽으면 '미추(味鄒·未鄒)/미조(味照·未祖)/미소(未召·未炤)' 세 가지로 나타난

다. 이름이 이렇게 비슷한 소리를 지닌 여러 가지 한자로 표기되었다는 것은 그 한자들이 뜻이 아니라 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미추왕의 한자 표기에 쓰인 ‘鄒·召·炤·照·祖’의 隋唐代 中古음을 음운학자들은 <표 1>과 같이 추정했다.⁶⁵⁾ 이를 보면 ‘味鄒王’을 지금의 한글로 옮기면 대체로 ‘미조[mitsV/midzV]’ 짝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⁶⁾

<표 1> 미추왕 이름 한자의 中古音

	鄒 추	召 소	炤 소	照 조	祖 조
B. Karlgren		ziäu	tšiäu	tšiäü	tsuo
周法高	tšiüo	džiæu	tšiæu	tšiæü	tsuo
藤堂明保	tšiüu	tʃiæu	tʃiæu	tʃiæü	tso

* 周法高(主編), 1973 『漢字古今音彙』, 香港中文大學出版
藤堂明保·加納喜光, 2005 『(學研)新漢和字典』, 學習研究社

그러나 이 소리는 중국의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音價로 변형되어 재현되어야 한다.⁶⁷⁾ 고대국어에서⁶⁸⁾ 유기음 파열음(ㅍ, ㅌ, ㅊ, ㅋ)이나 무

64) “味鄒一云 味照”(『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味鄒尼師今); “未仇未鄒尼師奈兄弟也”(『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奈勿尼師今); “未鄒王”(『삼국사기』 권45, 열전5 昔于老); “一作未炤 又未祖 又未召”(『삼국유사』 권1, 왕력1 未鄒尼叱今); “(俱)道生未鄒”(『삼국유사』 권1, 기이2 金闕智脫解王代); “未鄒尼叱今一作 未祖 又未古”(『삼국유사』 기이2 未鄒王竹葉軍). 이 가운데에는 未古, 未鄒도 있으나 古는 召를, 未은 未를 잘못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65) 중국어와 우리말 음운이 달라 어차피 경향성만 파악하면 되므로 발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66) [mitsV] 뒤에 [midzV]를 추가한 것은 모음 사이에서 [ts]가 유성음화하여 [dz]로 발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7) ‘mouth’나 ‘mouse’나 우리말로는 똑같이 ‘마우스’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68) ‘고대국어’에서 ‘고대’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기 10세기 말까지를 일반적으로 잡으며, 세분하면 5세기말까지를 전기고대국어, 6세기부터 10세기말까지를 후기고대국어로 부른다(최남희, 2006 『고대국어 한자음』 『국어

기음 파열음(ㅃ, ㅆ, ㅈ, ㅊ)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어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⁶⁹⁾ 그러므로 ‘미추’는 제외되고 ‘미소’와 ‘미조’가 남는다. 그런데 마찰음 ‘ㅅ[sʰ]’이 고대국어에 존재했다는 데 대해서는 국어학계에 이의가 없으나, 파찰음 ‘ㅈ[tsʰ]’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매우 많다.⁷⁰⁾ 미추왕(재위 262~284)이 존재했던 시기의 전기 고대국어에 파찰음 ‘ㅈ’이 없었다고 한다면 ‘미소[misV/mizV]’가 될 것이고, 있었다고 한다면 ‘미조[mitsV/midzV]’가 추가될 터인데 여기서는 편의상 ‘미소[misV]’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⁷¹⁾

[s]는 종종 [r]로 바뀐다. 인도유럽어군에서 로타시즘(Rhotacism)으로 명명된 이 현상은 우리말에서도 흔한 현상이다.⁷²⁾ 예컨대 ‘소시홀(召尸忽)’은 ‘소리홀’이 되고⁷³⁾ 沃川의 옛 지명 ‘고시산(古尸山)’을 ‘고리산(古利山)’이라고도 불렀으며,⁷⁴⁾ 향가에 자주 보이듯이 국어 고대 표기에서 목적격 조사 또는 관형형 ‘-을/-르’를 표기할 때에는 ‘시(尸)’를 써서 표기하였다.⁷⁵⁾ [s]와 [r]이

사와 한자음』, 박이정, p.12). 여기서는 그 구분을 따른다.

- 69) 1961년에 이기문이 평음(ㅂ, ㄷ, ㅅ, ㄱ)과 유기음(ㅃ, ㅆ, ㅈ, ㅊ)이 모두 존재했다는 가설을 제시했으나 곧 고노 로쿠로(河野六郎)와 박병채에 의해 비판을 받았고 이제는 유기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다(전소영, 1990 앞의 책, p.19).
- 70) 전기 고대국어에서는 파찰음 ‘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중국 上古音에서 ‘ㄱ’로 발음되었던 ‘石, 禪, 是’ 등 많은 한자음이 현재 우리말 한자음에서는 ‘ㄴ’로 발음되고 있는 것은 그 흔적이다(최남희, 2006 앞의 논문, pp.38~44).
- 71) 음가를 ‘미조’로 하든지 ‘미소’로 하든지 이 글의 논지 전개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나 편의상 하나만 제시한다.
- 72) ‘was→were’, ‘genus→generis’, ‘water’를 ‘워러’로 발음하는 것처럼 [s, z, d, t, n] 등이 [r]로 변하는 로타시즘은 영어, 라틴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 73) 『三國史記』 권37, 志6 地理4 “木銀城 本召尸忽”. ‘소시’소리’소이’쇠’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소영, 1990 앞의 책, pp.150~151 참조.
- 74) 도수희, 2010 『한국 지명 신 연구』, 제이앤씨, pp.174~175.

서로 넘나든 사례는 한국어 안에서,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서도 무수히 발견된다.⁷⁶⁾

따라서 ‘미소[*misV*]’는 ‘미로[*mirV*]’로 변할 수 있다. 결국 중세국어의 龍을 가리키는 ‘미르/미르/미리[*mirV*]’⁷⁷⁾ 고대국어에서는 ‘미스/미스/미시/미소/미수[*misV*]’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⁷⁸⁾ 즉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昧鄒[*misV*]’는 용을 가리키는 말과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말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결국 신라 중대에 용을 ‘미소[*misV*]’라 했으므로 미소왕, 즉 미추왕은 용왕이었으며, 은하수를 하늘의 용으로 생각했기에 미추왕을 은하수왕 星漢王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추왕이 용왕이었다는 추정의 근거는 음운학적 법칙만이 아니다. 『삼국유사』의 미추왕과 竹葉軍에 관한 이야기도 그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용은 대나무와 깊은 연관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의상이 낙산에서 동해의 용으로부터 여의주를 받았고 그때 산에는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았다는 설

75) 박병채, 1996 『국어발달사』(보정판), 세영사, pp.88-89-93. 향가에서는 慕竹旨郎歌의 “宿尸夜音有叱下是(잘 밤 이 샤리)”, 彗星歌의 “道尸掃尸星利望良古(길 쓸 별 바라고)”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삼국유사』 권2, 기이2 孝昭王代竹旨郎; 권5, 감통7 融天師彗星歌眞平王代).

76) 몇 개만 추리면 한국어 안에서의 변화로 무리(群)와 못(東), 날(日)과 낮(晝), 구름(雲)과 굶다(曇), 갈모(笠帽)과 갓(笠), 한국어와 일본어에서의 변화로 별과 hosi(星), 물과 midzu(水), 바리와 hatsi(鉢), 여름과 natsu(夏) 등 많은 사례가 있다(이병선, 1996 『한국고대지명연구-한국 옛 지명과의 비교-』, 아세아문화사, pp.16~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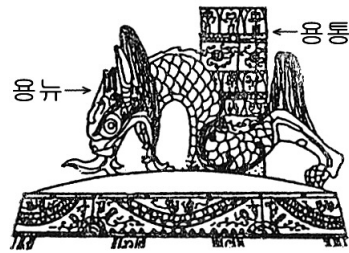
77) 『光州千字文』(1575) 1葉, 辰 미르 진(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編, 1973 『千字文』, 단국대학교출판부 p.12); 4葉, 龍 미르 룡(위의 책, p.17); 『訓蒙字會』(1527) 상권 1葉, 辰 미르 진 地支屬龍; 상권 20葉, 龍 미르 룡; 『石峰千字文』(1583) 4葉, 龍 미르 룡(위의 책, p.107); 『雅言覺非』(1819) 龍爲豫 미리 룡(『與猶堂全書』 제1집 23권 雅言覺非 15葉 / 아름출판사 영인, 1995 『與猶堂全書』 ③, p.623).

78) 우리말에 실제로 음가를 가진 ‘·’가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화가 전한다.⁷⁹⁾ 그리고 신문왕 때 萬波息笛 설화에서는 利見臺에서 바라보이는 거북머리 모양의 산에 낮에는 둘이었다가 밤에는 하나가 되는 대나무가 있어서 그 산에 갔더니 용이 나타나 검은 玉帶를 바쳤고, 그 옥대 한 조각을 떼어 물에 넣으니 용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불면 敵兵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 지면 날이 개며, 바람이 멎고 물결이 가라앉는다 하여 萬波息笛이라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고 한다.⁸⁰⁾

용과 대나무, 또는 용의 전신인 뱀과 대나무가 연결된 설화는 오래전부터 중국에도 있었다. 漢代 『風俗通義』에는 羌 사람이 대나무를 베어낼 때마다 용이 물속에서 우는데 대나무를 잘라 피리를 만들어 불었더니 소리가 용의 울음소리와 비슷했다는 姜笛 이야기가 전하며, 『晉書』 樂志에는 黃帝가 蚩尤와 涿鹿에서 싸울 때에 용 울음소리가 나는 角笛을 불어 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南宋代 『續博物志』에는 대나무 마디가 뱀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清代 『淵鑑類函』에는 대나무 가운데에 뱀 모양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대나무가 용의 前身인 뱀과 관련되어 있음을 전해준다.⁸¹⁾

그리고 대와 용이 연관되었던 흔적은 통일신라 범종에도 남아 있다. 범종의 천판 위에는 대나무처럼 속이 비고



〈그림 6〉 상원사동종(725)의 용뉴(龍紐)와 용통(甬筒)

79) 『삼국유사』 권3, 탑상4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80) 『삼국유사』 권2, 기이2 萬波息笛.

81) 三品彰英, 1943 「脫解傳説—東海龍神の信仰—」 『日鮮神話傳説の研究』, 京都: 柳原書店(1972 『日鮮神話傳説の研究』, 東京: 平凡社, 재출간), pp.288~289.

마디가 있는 甬筒이 있고, 그 용통과 일체가 된 용 모양의 고리, 龍鈕가 있다 (<그림 6>).⁸²⁾

그런데 미추왕이 대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한다. 제13대 미추왕이 죽고 제14대 유리왕이 즉위하자 伊西國 사람들이 金城을 공격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댓잎을 귀에 꽂은 군사들이 나타나 도와주어서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자 죽엽군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미추왕의 능 앞에는 댓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추왕릉을 竹現陵이라고 불렀다고 한다.⁸³⁾ 여기서 댓잎은 용의 비늘로 짐작된다. 마치 吳承恩의 『西遊記』에서 손오공이 털을 뽑아 붙여서 수많은 분신을 만들어 내듯이 미소왕(昧鄒王) 즉 미르왕(龍王)은 댓잎처럼 생긴 자신의 비늘로 죽엽군을 만들어낸 것이다. 무성한 잎이 달리고 하늘로 높이 솟은 기다란 대나무는 무성한 비늘의 용으로 형상화되었던 듯하다.

지금으로서는 ‘미소왕[昧鄒王]’의 ‘미소’가 龍이라는 뜻을 담기 위해 지은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왕의 이름 소리가 우연히 용과 같거나 비슷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런데 훗날 김씨 왕실이 ‘미소왕’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 ‘미소’를 ‘용’에 연관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Ⅵ. 은하수왕의 퇴출과 교체

太祖 星漢王이라는 칭호는 682년의 문무왕릉비에 처음 등장한다. 568년의 마운령순수비나 황초령순수비에서는 그저 太祖라고 불렀다. 진흥왕이 순

82) 황수영은 용통을 용과 관련된 萬波息笛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다(황수영, 1984 「신라법종과 만파식적 설화」 『신라문화』 1).

83) 『삼국유사』 권1, 기이2 未鄒王竹葉軍.

수비를 세운 때는 나물왕이 즉위한 356년에서 이미 200여년이나 지나 김씨의 왕위세습이 확고해졌으므로 미추왕을 太祖로 부르기에 족했다. 그러나 아직 은하수로 운색하지는 않았다.

그 후 654년에 진덕여왕이 사망하고 무열왕이 즉위하여, 성골왕실이 끊기고 진골왕실이 열렸을 때 중대왕실은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새로운 왕실이 열렸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자신들의 가계를 하늘의 별과 연결된 이야기로 운색했다. 그래서 7세기 후반에 미추왕에게 성한왕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 초까지도 금석문에 보이던 星漢王이 왜 고려 중후기에 편찬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전혀 보이지 않을까? 그 의문은 聖韓에 대한 의문과 연관되어 있다.

眞空大師塔碑文에 등장하는 ‘聖韓’이 星漢일 수 있었던 것은 발음이 같았기 때문이며, ‘聖韓’이 ‘星漢’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라고 연구자들이 모두 동의한 것도 그 이면에는 ‘星漢’이 소리로 표기한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星漢’이 은하수라는 뜻을 표기한 호칭이라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星漢’을 뜻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고, 聖韓은 여전히 星漢을 미화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미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星漢이라는 표기를 회피한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고려초의 특수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眞澈大師塔碑文이 세워진 937년 10월은 신라가 멸망한지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며 후백제의 멸망으로 후삼국통일이 이루어진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최연위는 진철대사탑비문을 쓰면서 예전 신라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태조 미추왕을 星漢이라는 별명으로 썼다.

그러나 星漢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라 은하수라는 보통명사의 속성을 지닌 이름이다. 즉 하늘의 은하수가 신라 왕실의 조상이라는 관

념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제 신라는 멸망했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는데 은하수왕이라는 이름을 여전히 쓸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진철대사탑비가 세워지고 난 후에 星漢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관념이 점점 널리 퍼졌을 것이고, 그 비문을 읽은 누군가가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일을 크게 문제 삼아 이미 세워진 비의 비문을 다시 고쳐 새길 것까지는 없었다. 이미 통일신라시대 비문에 새겨진 星漢까지 깎아낼 필요도 없었다. 다만 그때부터는 이러한 표현에 제동이 걸렸거나 최언위 스스로 자제하게 되었을 것이다.

2년 후 최언위는 이번에는 진공대사탑비문을 쓰게 되었다. 그는 교묘한 기교를 부렸다. 星漢과 소리가 같은 聖韓이라는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금기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뜻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결국 星漢은 고려 왕조 초기에 퇴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와 더불어 다른 이유도 생각할 수 있다. 신라가 멸망한 뒤에 왕건의 중조부 손호술을 은하수로 생각하는 관념이 생겼던 것이다. 그 관념이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결국 星漢王의 주인공이 교체된 것이다.

신라 중대 진골 왕실은 새로운 왕실의 신성성을 알리기 위해 예전 성골 왕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왕의 신성한 탄생을 운색했다. 즉 신라 중묘 터에서 발견된 여섯 구덩이 안의 다섯 항아리로 알 수 있듯이 제왕의 상징 北極五星의 精이 胎의 상징 三胎六星에 잉태되어 형성된 靈이 지상에 강림하여 제왕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만든 것이다.⁸⁴⁾ 그리고 그 북극오성은 은하수에서 배출되었다.

그 이야기의 틀은 그대로 고려왕실로 계승되었다. 그것은 개성 침성대가 여섯 판석 밑의 다섯 기둥으로 삼태육성이 북극오성을 잉태한 형상을 표현

84) 정연식, 2011(c) 앞의 논문.

한 것으로 알 수 있다.⁸⁵⁾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으니 북극오성을 배출한 주인 공도 바뀌어야 했다.

앞에서 오즘을 누어 삼한 산천을 銀海에 잠기게 한 損乎述의 꿈에서 은빛 바다는 은하수이며 은빛 오즘은 희뿌연 精이라고 했다. 따라서 始祖 미추왕이 신라 김씨 왕실의 은하수왕이었듯이 손호술은 고려 왕실의 은하수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손호술에게 國祖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이다.

결국 손호술은 북극오성의 근원인 은하수이며 모든 제왕의 시조로서 신라왕실의 미추왕과 같은 존재였다. 星漢의 주인공이 통일신라 왕실의 太祖 미추왕에서 고려 왕실의 國祖 元德大王 손호술로 교체된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미추왕에게 星漢이라는 별명을 부여할 수 없었다.

아마도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참고한 문헌에는 미추왕의 별명으로 星漢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가 멸망했는데 은하수가 신라왕실의 시조라는 관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었고, 게다가 國祖 손호술이 새로운 은하수왕으로 등장했는데, 星漢이라는 별명을 신라 왕에게 부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당대에 쓰인 미추왕이라는 본명이 있는데 굳이 중대에 만들어진 星漢王이라는 별명을 드러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신라 중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금석문에 등장했던 星漢이 고려 중후기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된 까닭이다.

VII. 맺음말

신라 제13대 미추왕은 김씨로는 처음 왕위에 오른 인물이므로 그가 진흥왕순수비의 태조이고 문무왕릉비의 태조 성한이며, 신문왕 때 종묘 태조실

85) 정연식, 2011(b) 앞의 논문, pp.343~344.

에 봉안된 왕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비록 성한왕, 즉 미추왕이 금석문에 문무왕의 15대조이며 흥덕왕의 24대조로 새겨진 것을 해석해야 하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지만, 신라 왕실에 왕통세대수와 혈통세대수라는 이중의 셈법이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면 충분히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秣侯 金日磾가 문무왕릉비에 7葉孫으로 등장했던 것은 미추왕의 7대조이자 김씨 혈통의 시조 김알지가 이름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김일제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추왕을 김알지의 7葉孫이고 문무왕의 15대조이며 흥덕왕의 24대조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문헌자료의 미추왕과 금석문자료의 성한왕이라는 이름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름이 아니다. 중대 왕실은 왕이란 하늘의 별이 지상에 내려온 신성한 존재로 생각했으며 그 별의 근원을 은하수라 생각했다. 결국 김씨 왕통의 시조는 하늘의 은하수가 된다. 그래서 은하수를 뜻하는 漢, 星漢을 써서 김씨 왕통의 시조 미추왕을 ‘漢王’ ‘星漢王’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던 것이다.

은하수를 ‘미리내[龍川]’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어린 딸과 함께 우물로 들어가 사라진, 「高麗世系」의 龍女 이야기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었듯이 기다란 은하수는 하늘의 용으로 생각되었다. 언어학적인 음운변화 법칙을 고려하면 중세국어의 용을 뜻하는 ‘미르/미르/미리[mirV]’는 통일신라기 고대국어에서는 ‘미소[misV]’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본래 未召王, 味鄒王 등은 우리말의 ‘미소왕’을 한자음을 빌어서 표기한 것이다. 즉 ‘미소왕은 용왕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을 것이고 ‘미소왕’이 용왕으로 인식되었던 단서는 『삼국유사』의 미추왕과 竹葉軍의 고사에 남아 있다. 따라서 미소왕은 용왕이고 용왕은 은하수왕이므로 미소왕을 별칭으로 漢王 또는 星漢王이라 썼던 것이다.

味鄒가 은하수 星漢과 소리로 상통하므로 제왕 북극오성이 시조 은하수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7세기에 북극오성이 은하수에서 나왔다는 관념이 생성되면서 미추라는 이름이 은하수 성한과 엮였는지

그 논리적 또는 시간적 선후관계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3세기에 사망한 미추왕이 6세기의 진흥왕순수비에서도 그저 ‘太祖’로 기록되고 있다가 7세기의 문무왕릉비에서 비로소 ‘太祖 星漢王’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투고일 : 2011.5.11

심사개시일 : 2011.5.18

심사완료일 : 2011.6.3

참고문헌

- 김호, 2000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 김형주, 1996 『우리말 발달사』, 세종출판사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編, 1973 『千字文』, 단국대학교출판부
- 도수희, 2010 『한국 지명 신 연구』, 제이앤씨
- 박병채, 1996 『국어발달사』(보정판), 세영사
- 이병신, 1996 『한국고대지명연구-한국 옛 지명과의 비교-』, 아세아문화사
- 이종욱, 1980 『신라상대왕위계승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 천소영, 1990 『고대국어의 어휘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 최남희·권인한·정경일·김무림(편), 2006 『국어사와 한자음』, 박이정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編,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 (신라1·가야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葛城末治, 1935 『朝鮮金石攷』, 京城：大阪屋號書店
- 姜波, 2003 『漢唐都城禮制建築研究』, 北京：文物出版社
- 羅竹風(主編), 1991 『漢語大詞典』, 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 藤堂明保·加納喜光, 2005 『(學研)新漢和大字典』, 東京：學習研究社
-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京：東洋文庫
- 三品彰英, 1943 『日鮮神話傳説の研究』, 京都：柳原書店(1972 東京：平凡社 再出刊)
- 諸橋轍次, 1985 『大漢和辭典』, 東京：大修館書店
- 朝鮮總督府편, 1919 『朝鮮金石總覽』上·下
- 周法高(主編), 1973 『漢字古今音彙』, 香港：香港中文大學出版
- 강종훈, 1994 「신국의 설치를 통해 본 마립간시기의 신라」 『한국고대사논총』 6
- 김용선, 1980 「고구려 瑠璃王 考」 『역사학보』 87
- 김창호, 1983 「신라 태조성한의 재검토」 『역사교육논집』 5
- 김창호, 1983 「永川 葦堤碑 貞元十四年銘의 재검토」 『한국사연구』 43
- 김창호, 1986 「문무왕릉비에 보이는 신라인의 조상의식-태조성한의 添補-」 『한국사연구』 53
- 김철준, 1956 「고구려, 신라의 관계조직의 성립과정」 『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 문경현, 1972 「신라건국설화의 연구」 『대구사학』 4

- 변태섭, 1964 「廟制의 변천을 통하여 본 신라사회의 발전과정」 『역사교육』 8
- 이기동, 1978 「신라 태조 성한의 문제와 흥덕왕릉비의 발견」 『대구사학』 15·16합
- 이종태, 1999 「신라의 시조와 태조」 『백산학보』 52
- 정연식, 2009 「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첨성대」 『역사와 현실』 74
- 정연식, 2011a 「평양 첨성대의 서사구조와 연개소문의 탄생」 『역사와 현실』 79
- 정연식, 2011b 「王建 탄생의 落星 설화와 개성 첨성대」 『한국중세사연구』 30
- 정연식, 2011c 「통일신라의 종묘 건축과 종묘제의 변화-계림 북쪽의 대형건물 유구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53
- 채미하, 2002 「신라 종묘제의 수용과 그 의미」 『역사학보』 176
- 황선영, 1989 「신라의 廟制와 廟號」 『동의사학』 5
- 황수영, 1984 「신라법종과 만파식적 설화」 『신라문화』 1
- 今西龍, 1921 「新羅文武王陵碑に就きて」 『藝文』 12-7
- 木下禮仁, 1966 「新羅における始祖系譜の形成過程-閼智·星漢·味鄒·奈勿をめぐって-」 『甲南大學文學會論集』 31
- 木下禮仁, 1966 「新羅始祖系譜の構成-金氏始祖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
- 長田夏樹, 1966 「新羅文武王陵碑文初探」 『神戸外大論叢』 17-1·2·3合
- 前間恭作, 1925 「新羅王の世次と其名につきて」 『東洋學報』 15-2
- 村上四男, 1961 「金官國の世系と卒支公(率友公)」 『朝鮮學報』 21·22合
- 戸崎哲彦, 1989 「唐代における太廟制度の變遷」 『彦根論叢』 262·263合

Abstract

King Michu, the founder of the house of Kim of the Shilla dynasty and the Milky Way

Chung, Yeon-Sik

It is no doubt that King Seonghan(星漢王) represented in the epitaph of the Unified Shilla period was the King Michu(味鄒王), the founder of the house of Kim.

King Seonghan was represented as King Munmu(文武王)'s ancestor 15 generations back and King Heungdeok(興德王)'s ancestor 24 generations back in the epitaphs, because the generations of the royal house were counted by throne generations as well as lineage generations.

In the Unified Shilla period kings were considered to be born by the five Polestars from the Milky Way. The Milky Way was an ideal founder of the royal house so King Michu was called Seonghan which meant the Milky Way.

There was another reason that they called him Seonghan. 'Michu' was a phonetic representation of [misV] and [misV] in ancient Korean might changed into [mirV] which meant dragon in mediaeval Korean. The phonetic value [misV] could be changed into [mirV] by rhotacism. Korean people regarded the Milky Way as a dragon in the sky, so King Michu could be called Seonghan which meant the Milky way.

Key words : King Michu, Seonghan, generations, dragon, the Milky Way